



갈 길 먼데... 프로배구 순위 양극화 심화

남자 3강 여자 1강 구도
순위 싸움 판도 고착화

‘볼 배구’ 팀 조기 압축
흥행에 악영향 될라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프로배구 남녀 부 순위 싸움은 벌써 끝물인 듯한 분위기다. 이제 정규리그 2라운드 진행 중인데도 순위 양극화가 굳어질 조짐이다.

25일 현재 남자부 경쟁은 KB손해보험(승점 22), OK저축은행(승점 21), 대한항공(승점 20) 3강과 4각의 구도로 진행 중이다.

나란히 10경기를 치른 3위 대한항공과 4위 삼성화재(승점 11)의 격차는 9점에 달한다.

시즌 중 갑작스럽게 리빌딩으로 전환한 현대캐피탈이 최하위로 추락하고, 지난 시즌 1위 우리카드도 세터 문제로 5위에 머무는 등 강호들이 하위권을 맴돌면서 남자부 판도는 크게 바뀌었다.

3강의 페이스가 워낙 좋은 터라 당분간 남자부 관련 포인트는 트레이드로 전력을 크게 보강한 6위 한국전력



25일 열린 2020-2021 프로배구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의 경기에서 KB손해보험 케이터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행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체육부대에서 전역한 공격수 허수봉의 가세로 명가 재건에 도전하는 현대캐피탈의 하위권 탈출 여부도 팬들의 시선을 끈다.

여자부는 개막 후 8연승을 질주하는 ‘절대 1강’ 흥국생명(승점 22)을 중심으로 3중 2약의 모양새다. GS칼텍스와 IBK기업은행, KGC

인삼공사가 중위권에서 경쟁 중이고, 현대건설(승점 5)과 한국도로공사(승점 4)는 하위권으로 미끄러움을 탔다.

흥국생명과 하위권 두 팀의 격차는 너무 벌어졌다. 현대건설과 도로공사가 당장 반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여자부 ‘볼 배구’ 경쟁팀은 4개 팀으로 조기에 압축될 수도 있다. 이러면 V리그 전체 흥행에도 악영

향을 끼친다.

다만, 김연경, 이재영, 루시아 프레스코 삼각 편대와 국가대표 세터 이다영을 앞세워 독주 중인 흥국생명을 꺾는 팀이 등장한다면 판전 재미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

흥국생명은 1라운드에서 도로공사, 2라운드에서 GS칼텍스를 누르고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축구의 신’ 영육의 60년 드리블 끝내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 심장마비로 별세

26일(한국시간) 심장마비로 6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마라도나는 한계의 끝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 준 선수였기에 ‘축구의 신’으로 불렸다.

마라도나는 불과 스무 살에 아르헨티나 정규리그 득점왕과 남미 올해의 선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일찌감치 스타덤에 올랐다.

유럽으로 진출해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클럽 FC바르셀로나에서 승승장구하던 마라도나는 1984년 이탈리아 나폴리에 입단하며 본격적으로 새 축구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마라도나는 이탈리아 세리에A(1부리그)의 만년 중하위권 팀이던 나폴리에 모든 트로피를 안겨줬다.

마라도나와 비교되곤 하는 아르헨



나폴리 첫 리그 우승을 이룬 마라도나.

연합뉴스

티나 대표팀 후배 리오넬 메시는 스페인 최강팀인 바르셀로나에서만 뛰었다. 메시는 마라도나와 달리 월드컵 우승도 없다.

이기가 위해 뭐든 하는 성격은 마라도나 신화에 극적인 요소를 더한다.

마라도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 잉글랜드와 경기(아르헨티나 2-1

승)에서는 왼손으로 골을 넣은, 이른바 ‘신의 손’ 오심 사건을 일으켰다.

손으로 넣은 이 골로 1-0을 만든 마라도나는 불과 4분 뒤 상대 선수 7명을 제치며 50m 질주한 끝에 추가 골을 넣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2-1로 이겼고, 월드컵 우승까지 차지했다.

추락도 극적이었다. 약물 중독이 마라도나의 발목을 잡았다.

23세이던 1983년부터 코카인 중독 의혹을 받던 마라도나는 나폴리에서 뛰던 1991년 약물 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여 15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고, 나폴리를 떠나게 된다.

마라도나는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나이지리아전 뒤 도핑 검사에서 적발돼 대회 도중 퇴출당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은퇴 후에도 마약·알코올 중독 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던 마라도나는 지난해 9월에는 자국 프로축구 1부 팀인 힌나시아 라플라타를 지휘했고, 영육을 뒤로하고 결국 60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연합뉴스

상승세 ‘경남’ vs 맞대결 전승 ‘수원’

2020 K리그2 플레이오프
승격 티켓 두고 진검승부

1년 만의 K리그1 복귀를 꿈꾸는 경남FC와 ‘마지막 승부’를 앞둔 수원FC의 김도균(43) 감독은 “경남이 어제 경기 전반전에서는 아주 좋아 보였다. 승격을 향한 열망이 커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하나원큐 K리그2 2020 정규리그에서 2위를 차지한 수원FC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경남FC와 플레이오프(PO)를 치른다. PO에서 승리한 팀은 내년 K리그1 승격 티켓을 쏜다.

수원FC는 2016년 K리그 클래식(현 K리그1)에서 최하위로 밀려 2부리그로 강등된 이후 올해까지 4시즌을 2부리그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K리그2에서 2위를 차지하며 5년 만의 K리그1 승격 기회를 얻었다.

이에 맞서는 경남FC는 지난해 K리그1에서 11위로 밀린 뒤 승강 PO에

서 부산 아이파크에 저 2부리그로 강등됐다. 올해 K리그2에서 3위로 시즌을 마감한 경남FC는 준PO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을 따돌리고 PO에 진출해 1년 만에 1부 복귀를 꿈꾸고 있다.

지난 21일 정규리그 최종전을 치른 경남은 25일 준PO에 이어 29일 PO를 치러야 하는 만큼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숙제다.

더불어 경남은 올해 수원FC와 3차례 대결에서 3전패를 당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했다. 수원FC를 올해 한 차례도 꺾지 못했지만 경남의 강점은 상승세다.

정규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6위로 밀렸던 경남은 대전과 최종전에서 승리하며 3위로 뛰어올랐고, 준PO에서 다시 만난 대전과 비기며 PO에 진출했다.

수원FC는 지난 7일 최종전을 치른 이후 3주 만에 PO를 치러야 해서 실전 감각이 떨어지는 게 고민이다. 수원FC는 PO에 대비해 4차례 연습경기를 펼쳐며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데 애를 썼다.

연합뉴스



골잡이 레반도프스키 득점포 가동 26일(한국시간)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 잘츠부르크의 2020/2021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A조 경기에서 뮌헨의 레반도프스키가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뮌헨은 이날 3-1로 승리해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연합뉴스



정확한 품종, 우량종묘 공급으로 고객과의 믿음을 지켜 나갑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땅과 정성이 담긴 제주의 명품을 빠르게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수익성 높고,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품질 종묘 생산으로 고객분들께 품질만족과 좋은가격으로 묘목을 공급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과수종묘협회 제주지회
감귤GSP프로젝트

❖ 주요 행사내용

- 2017년도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제주지회 세미나 주최
내용: 기후변화와 한국과수산업 과수묘목 무병묘 보급 촉진
- 2018 농촌진흥청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체결
내용: 원터프린스 미니향 제라몬외4종
-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2018
내용: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류 재배기술 및 사업설명회
- 2019 농촌진흥청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체결
내용: 탐나는봉 신예감 무봉 탐도3호
- 제3회 국제종자박람회 2019
내용: 국내육성 신품종 원터프린스 외 12종 감귤묘목 전시 및 소개
- 2019 제주국제감귤박람회
내용: 제주대학교 감귤GSP프로젝트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묘목 전시 및 홍보
- 2019 국내육성 우수 감귤 신품종 23농가보급
내용: 원터프린스 미니향 하례조생 제라몬 외 3종
- 2020 제주도농업기술보급사업
사업명: 명품감귤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사업 품종갱신 교육공급
- 2020 농촌진흥청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체결
내용: 사라향 미니몬
- 2020 국내육성 우수 감귤 신품종 35농가보급
내용: 원터프린스 미니향 하례조생 제라몬 외 5종
- 2020 제주도 감귤원 원자정비사업
사업명: 원자정비사업 우량품종 갱신사업 교육공급

[제주지회 우수 묘목업체]

 민성종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013-1번지	 정원종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촌리 3083	 서귀종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697번지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산읍 서성일로 991번지 1		